

OVERWATCH®

BASTET



MICHAEL CHU 단편 소설



글
MICHAEL CHU

원화
ARNOLD TSANG

추가 아트웍
BENGAL

디자인 및 레이아웃
BENJAMIN SCANLON



아나가 며칠이나 잠복해 기다린 끝에, 드디어 아나의 목표물이 카이로의 호화로운 고대 궁전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왕이나 다름없는 압둘 하킴은 자신의 힘과 영향력으로 도시의 생명줄을 쥐어짜고 자신과 추종자들을 부유하게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아나가 놈을 포획하기 전에, 첫 번째 유령이 나타났다. 잭 모리슨이었다. 비록 가면을 쓴 채 무법자 솔저: 76의 모습으로 신원을 감췄지만, 아나는 바로 알아챌 수 있었다.

세상은 모리슨이 스위스 오버워치 기지 폭발 사고로 죽었다고 믿었으나, 아나는 믿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피할 것으로 보이는 잭을 한 망령이 뒤쫓고 있었다... 리퍼였다. 하얀 해골 가면 뒤에 얼굴을 가리고 온몸을 검은 옷으로 감싼 살인마...

리퍼가 잭을 상대하고 있을 때, 아나가 개입하여 잭을 지원했다. 그녀는 리퍼를 제압하고 바닥에 눌힌 다음 해골 같은 가면을 벗겨내고 그 밑에 가려진 망가진 얼굴을 보고 말했다. 가브리엘 레예스, 잭만큼이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이자 전우였다. 가브리엘은 자신이 유령이라는 걸 증명이라도 하듯 허공으로 퍼져나가더니 이윽고 속삭임처럼 사라져버렸다.

아나는 그녀에게 형제 같은 가브리엘과 잭이 둘 다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버렸다.

저들도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으니 공평한 건가.

아나는 깊게 심호흡하고 현장을 조사했다. 탄환 자국이 벽을 뒤덮고 있었고, 바닥의 타일은 깨져 있었다. 그리고 하킴이 운영하는 불법 기업의 중추인 저택 경비병들의 시체가 애들 장난감처럼 널브러져 있었다. 저택 안마당의 중심부에서 잭은 덤덤하게 서있었다.

“내가 다 처리했다.” 잭이 쓰러진 용병의 물건을 뒤지며 말했다.

그때, 둘 사이에 있던 경비병 하나가 짧게 신음 소리를 냈다. 그리고 아나는 재빨리 그의 목을 향해 수면총을 발사했다.

아나는
그녀에게
형제 같은
가브리엘과
잭이 둘
다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버렸다.



“하나 놓쳤어.” 아나가 말했다.

잭이 어깨를 으쓱했다. “나도 반갑다, 아나.”

아나는 두건 안에서 가면처럼 생긴 조준경을 내렸다. HUD 화면이 뜨지 않는 걸 확인한 그녀는 귀찮은 듯 조준경을 올렸다. “놈이 어디로 갔는지 알겠나?”

잭은 자신의 조준경을 가동하고 주변을 스캔했다. “흔적조차 없어.”

나중에 걱정할 문제겠군.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아나가 말했다. 잭은 자켓의 숫자 “76” 밑에 총을 맞은 상태였다. 아나가 더 가까이에서 살펴보자, 샷건에 자켓과 살점이 찢겨나가 있었다. 즉사할 수도 있는 거리였으나, 잭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 미군에서 실행했던 군인 강화 프로그램의 실행 개체였던 과거의 유산으로 잭의 상처는 스스로 치유될 수 있었다. 아나는 벌써 분홍색 새살이 가장자리부터 돌아나는 걸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나, 완전한 건 아니었다. 가장 큰 상처를 입은 곳의 살점은 검게 물들어 서서히 괴사하고 있었다.

“난 괜찮아.” 잭이 신음하며 말했다. “우린 조금만 기다리면 괜찮아져.”

우리라고? 아나는 생각했다.

잭은 벌써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자가 살아있었다는 사실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건가?

희미한 사이렌 소리가 그녀를 방해했다. “어서 가야 해. 누군가가 눈치챈 것 같아.”

잭은 고개를 끄덕였다. “안내해.”



한 시간 뒤, 아나와 잭은 어둠 속에 쭈그리고 앉은 채, 손살갈이 지나가는 호버 택시와 로봇 낙타를 탄 민간인들을 바라보았다. 머리 위로는 소형 함선과 감시 드론들이 복잡하게 하늘을 수놓고 있었다. 전자는 도시의

부유한 자들을 오후 약속 장소로 태우고 가고 있었지만, 후자는 하킴의 성에서 벌어진 총격전 때문에 움직이고 있었다.

아나는 목표 위를 빙빙 맴도는 독수리처럼 자신들을 찾고 있는 순찰병들의 눈을 피해 좁은 길목을 수색하며 미로처럼 복잡한 골목과 좁은 길 사이에서 빠져나갈 경로를 탐색했다. 인생 처음으로, 아나는 오버워치의 무력 개입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복원 중인 도시의 조각보 같은 구조를 감사하게 느꼈다. 아나가 조국으로 돌아 온 이유로 조국의 상태도 한몫했다. 아나는 이곳에 오버워치가 남긴 유산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 선택이 그녀의 책임이었든 아니든 말이다.

버려진 거대한 냉각 타워의 그림자 아래에서도 뜨거운 오후의 해에서 내리쬐는 후덥지근한 열기는 거의 버티기 힘들 정도였다. 아나에게 별 일 아니었으나, 잭은 너무나도 괴로워했다. 유전자 강화 시술은 그가 다양한 환경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게 도왔어야 했고, 복부에 봉대처럼 감아 놓은 셔츠에 번지는 피를 멈춰야 했다.

“몸을 좀 아껴야지.” 아나가 책망하듯 말했다.

“말하는 게 꼭 양겔라 같군.” 잭이 불평했다.

아나는 경찰차가 불빛을 번쩍이며 지나갈 때까지 기다린 다음,

잭에게 전진하라는 수신호를 보냈다.

“우릴 찾는 거 같나?” 잭이 이마의 땀을 닦아내며 물었다.

“아마 그럴겠지.” 아나가 멀어져가는 경찰차를 가늘게 뜬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여기는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야. 경찰은 늘 바쁘지.”

그것도 우리 유산이겠지.

잭은 몇 발자국 뒤쳐진 채로 벽에 몸을 기댔다. “프라하 때가 생각나는군.”

“이번에도 내가 업어줄 거라

생각 마.” 아나가 말했다. “서둘러, 잭. 계속 가야 해.” 아나는

아나는 이곳에
오버워치가 남긴
유산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 선택이 그녀의
책임이었든 아니든
말이다.

어둠 밖으로 뛰쳐나가며 길을 가로질렀다. 머리 위로는 폭발하듯 내리 쬐는 태양, 아래서는 뜨겁게 달궈진 돌의 열기가 느껴졌다.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온 그녀는 계속 말했다. “프라하 건은 네 잘못이었어. 어떻게 라인하르트가 물려 잠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

아나는 잭의 변명을 기다렸지만, 잭은 대답하지 않았다. 잭은 포장된 길 위에 자신을 흰히 드러낸 채 그대로 쓰러져 있었다.

지금은 안 돼. 아나가 잭에게 돌아가며 생각했다. 그녀는 잭을 일으키려고 했다. “일어나, 잭.” 하지만 반응하지 않았다.

아나는 잭의 팔을 어깨에 두르고 그를 일으켜 세워 골목으로 끌고 갔다.



잭은 서서히 깨어났다. 의외였다. 잭은 군에 입대하기 전에도 항상 선잠을 자는 편이었고 작은 소음에도 번쩍 깨곤 했었다. 잭은 방의 흐릿한 불빛에 적응될 때까지 눈을 감박거렸다. 그는 낡은 군용 침대에서 다 낡아빠진 담요를 덮고 있었다. 옆구리가 지옥처럼 아팠다.

“드디어 깬네.” 아나가 고양이와 접근하듯 불쑥 다가왔다. “차 마실래?”

“위스키가 좋겠어. 좀 있다면.”

아나는 잭을 흘겨보았다. “좋아, 당신이 나타날 때를 대비해서 한 병 쟁여 두고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차도 괜찮아.” 잭이 더 작은 소리로 말했다.

아나는 기지개를 켜다. “내가 당신을 여기까지 끌고 온 거 알아?”

“총 맞은 적은 많은데, 이런 기분은 처음이군.” 잭이 상처를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몸을 움직이며 얼굴을 찡그렸다. 크게 찢긴 상처 세 개가 등과 옆구리에 교차한 형태로 나 있었지만 이미 검은 색 실로 꿰매진 상태였다.

“그 상처 뭔가 심상치 않아. 의사한테 데려가야겠어.” 아나는 인덕션 버너가 올려져 있는 낡은 탁자로 이동한 다음 화려한 황금빛 주전자를 2구 중 하나에 올렸다.

“의사도 이걸 어떻게 손 봐야할 지 모를 걸.” 잭은 매우 상태가 나빠 보였다.

“치글러 박사가 머지않은 곳에 있을 거야.” 아나가 제안했다. “이번엔 내가 안 옮겨줄 거지만.”

“의사는 안 돼.” 잭이 말했다. “특히 앙겔라는 더.” *이걸 앙겔라에게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하지? 지금 우리를... 길 잃은 유령을 둘이나 보고 싶어할 거 같진 않은데.*

“직접 꿰매봤어.” 아나가 변명하듯 말했다. “응급 처치는 영 소질이 없었어. 필요할 일도 잘 없었고.”

잭은 삐죽삐죽하게 꿰맨 자국 위로 손가락을 갔다 댔다. “무슨 정육점에서 한 것 같은.”

“뭐, 원한다면 지금부터 직접 해도 좋아.”

“손이 안 닿아서 말이지.” 잭이 멧쩍게 말했다.

“그럼 불평하지 마.” 아나는 잠시 멍청하곤 말했다. “그리고... 그거 알아서 치유되지 않아?”

잭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정상이지. 총알에 무슨 생화학 물질이 묻어 있던 건 아닐까?”

“정말 치글러 박사를 안 봐도 되겠어?”

“우리가 왜 살아 있는지부터 설명해야 할 거야.” 잭이 말했다.

“치글러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야. 이런 일엔 익숙할 걸?”

아나가 웃으며 말했다.

“앙겔라는 안 돼.” 잭이 딱 잘라 말했다.

잭은 아나의 집을 있는 그대로 둘러보았다. 전술 장비들과 군용 침대, 감시 장비와 일부 생활 용품들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아파트보단 유적지에 가까운 공간이었다. 낡은 돌기둥이 받치고 있는 이 오래된 석실의 벽에는 상형문자들이 새겨져 있었다. 비록 일부는 근래에 훼손범들이 남긴 작품처럼 보이긴 했지만, 아나는 낡은 탁자 위에 우윳빛 돌로 만든 양 머리 뚜껑이 달린 항아리, 매서운 고양이 여신 얼굴의, 황금빛과 검은빛이 섞인 가면, 황토색 진흙으로 만든 이 빠진 꽃병, 그리고 밝은

지금 우리를... 길 잃은 유령을 둘이나 보고 싶어할 거 같진 않은데.

“눈을 떴을 때,
내가 누구였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났어.”

녹색의 매 조각상과 같이 잘 보존된 고대 유적들을 전시해 두었다.

책은 유물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여기 있으니 어릴 적에 어머니가 데려갔던 뉴욕의 박물관이 생각나는군.” 고대 이집트 사원의 폐허를 그대로 옮겨둔 곳을 뛰어다니는 추억은 그가 여행 중 가장 좋아했던 순간이었다. 그는 그 추억을 떠올리며 웃음을 지었다.

아나는 파란색 바탕에 빨간색 격자 무늬가 새겨진 머그컵을 책에게 주었다. “여긴 죽은 자의 도시, 네크로폴리스야.”

“적절한 이름이군.” 책은 상국 웃음 짓고 작은 전시품들을 향해 손짓하며 말했다. “저것들은 뭐지?”

“여기로 이사 왔을 때 찾은 것들이야. 차마 못 버리겠더군. 이 유물들은 수천 년을 살아남았어. 여러 제국이 탄생하고 무너지는 동안에도 이들은 온전히 여기 있었지. 파이살 박사에게 보내기 전까진 내가 보관하겠다고 결심했어.”

책은 차를 후하고 불어 식혔다. “계속 여기에 있었던 건가?”

“폴란드의 병원을 떠난 이후로 계속 여기 있었지.” 아나는 차를 마시는 책을 지켜보며 말했다.

책은 쓴 맛에 얼굴을 찡그리고 말했다. “설탕 없나?”

아나는 그를 무시했다. “눈을 떴을 때, 내가 누구였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났어. 병원에 등록할 이름이 없으니 하나 붙여주더군. ‘자니나 코왈스카,’ 미국으로 떠지면 ‘제인 도우.’ 아무개 같은 이름이지. 병실에서 몇 개월을 고통과 혼란 속에 지냈어. 리 박사는 내가 운이 좋다더군. 두개골에 유리와 총알 파편이 박힌 것 치고는 말이야.” 아나는 그때 기억을 돌이켜보며 눈에 환상통을 느꼈다.

“널 찾으려고 했어.” 책이 엄숙하게 말했다. “내가 가진 모든 자료를 투입했지. 게이브는 맥크리까지 동원했고. 하지만 흔적조차 없었어. 주위 모두가 네가 죽었고 내가 이성적이지 못하다고 했지. 하지만 마음 속 깊이 난 네가 죽지 않았다고 믿었어.”

그리고 내 생각이 맞았군. 책은 생각했다.

“리 박사는 내 기록을 남기지 않았어. 난 그녀에게 위험한 사람들이 널 쫓고 있다고 했지.”

“내가 위험한가?” 책이 시치미를 떼며 물었다.

“넌 고양이 새끼에 불과해, 책.” 아나는 웃었다. “결국 난 그때 일어난 일을 짜맞췄지만,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상상인지 구분하지 못 했어. 임무는 기억해 냈지. 우린 적 저격수에게 휘둘리고 있었고, 내가 위치를 드러내려 했었어. 총을 쏘려고 조준했던 건 기억이 나. 하지만 웬지 다음에 일어난 일은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아했던 것 같았어.”

책은 자신의 찻잔을 들여다보았다.

“왜냐면 그 저격수를 알아봤거든.” 아나는 책을 조심스레 살피며 말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아멜리?” 책이 말했다. “그래.” 그것 말고도 아는 사실은 더 있었지만, 책은 입을 다물었다.

“불쌍한 제라르.” 아나는 한숨을 쉬었다.

둘은 손에 든 컵에서 느적느적 피어오르는 김이 오래된 방의 먼지 섞인 허공 속으로 흩어지는 동안 잠시 침묵하며 앉아 있었다.

“여기는 왜 온 거야, 책?” 끝내 아나가 물었다.

“내가 널 버려두고 갔다는 사실을 용서할 수 없었어. 그러다 카이로에서 현상금 사냥꾼이 활동한다는 소식을 들었지. 그래서 혹시 그게...” 책은 머그잔을 내려놓았다.

“당신, 포기를 못하는 성격이었지.” 아나가 책망했다. “너무 고집스러워서 탈이었어.”

“가브리엘이 움직이고 있어. 탈론은 더 강해지고 있고. 누군가는 그들을 막아야 해. 우리 모두가, 그리고 네가 고통받아야 했던 이 일을 어떻게든 끝낼 거야. 내가 놈들을 하나씩 찾아서 찢어버리겠어.”

책은 주먹을 불끈 쥔 채 열변을 토해냈고, 그 소리는 석실 벽에 닿아 메아리쳤다. 책은 천천히 주먹을 펼쳤다. “하지만 못 해. 네 도움 없인.”

“내가 널 버려두고
갔다는 사실을
용서할 수 없었어.”

아나는 팔짱을 껴다.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길바닥에서
실실했잖아.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쉬는 것뿐이야.”

“포기하지 마. 다들 포기했지만 넌 그러지 말라고. 놈들은
우리가 평생 쌓은 걸 무너뜨리고 우릴 악당으로 만들었어.”

“모두가 당신 같진 않아, 잭.” 아나가 말했다. “나아갈 수 있는
사람도 있어.”

“나도 나아가고 있는 거 맞아.” 잭이 으르렁거렸다.

“흥분한 것 같네.” 아나가 말했다. “당신, 지금은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야. 일단 좀 쉬어. 이걸 다음에 얘기하고.”

“다음에?” 잭의 눈이 머그잔으로 향하더니 다시 아나에게
돌아갔다. “너 설마?”

잭은 침대 위에 쓰러졌다.

자취를 감췄고, 아나는 기억 속에 남아 있던 잭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

아나는 잭을 쉬게 둔 채로 텅 빈 머그잔을 들어올렸다.

이후 아나는 보급품 담긴 부대 자루를 어깨에 맨 채 어두워진
건물로 돌아왔다. 불빛 없는 그 공간은 이전보다 더 무덤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입구 복도를 통해 거실로 들어가다 하필
상반신을 탈의한 채 이를 꼭 깨물고 한 손으로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는 잭을 발견했다. 붕대는 풀려 침대 위에 쌓아둔 상태였다.

“포기하지 마. 다들
포기했지만 넌
그러지 말라고.”

아나는 잭이 깊게 잠들 때까지 기다린 후에 그의 다리를 침대
위로 올리고 머리 밑에 베개를 밀어넣은 후에 모포를 덮었다.
잭에게는 아나가 처음 보는 상처가 나 있었고, 머리숱은 줄고
은빛 백발이 되어 있었다. 그가 잠든 동안, 솔저: 76는 이내



자신이 어설프게 꽤맨 실밥 덕에 간신히 붙어 있는 붉고 검은 상처가 눈에 들어왔다.

“그러다가 실밥 터진다.” 아나가 말했다.

“누워만 있는 건 적성에 안 맞아.” 잭이 설명했다.

“이틀 동안 자긴 했지.” 아나가 말했다. “배고프지 않아?”

“버거가 미친듯이 당기는군.”

아나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잭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주는 대로 먹지. 뭐.” 잭은 자신이 잘못했을 때 지었던 멧찍은 웃음을 지어 보였다. 가끔은 정말 어린아이 같았다.

아나는 자루에서 음식이 담긴 종이 가방을 빼서 잭 앞의 낮은 탁자 위에 놓았다. 코를 찌르는 냄새가 공기 중에 퍼져 나갔다. 팔라펠과 콩, 그리고 다진 양고기와 양파로 속을 채운 갓 구운 빵 몇 조각이었다. “내가 한 거 아니니까 걱정 마.”

“작은 기적을 행하신 신께 감사드려야겠군.” 잭이 킁거렸다.

아나 역시 자신도 모르게 웃어버렸다.

잭은 마치 게걸스럽게 먹는 게 익숙한 사람처럼 음식을 말그대로 해치워버렸다. 아나도 조금 먹긴 했으나, 둘은 대체로 말이 없었다. 식사가 끝나자, 잭은 자신이 앉아 있던 상자에 등을 기대고 다시 질문을 던졌다.

“왜 살아 있다고 알리지 않았지?” 잭이 물었다.

“당신이 이해할 수 있을지 몰랐어.” 아나가 말했다. “가브리엘이라면 이해했겠지. 하지만 당신은 좀 다르잖아.”

잭은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다. “파리하는? 딸도 네가 죽은 걸로 알게 뵈잖아.”

“그게 가장 힘들었어.” 아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는 일어서서 어린 딸을 업고 있는 자신의 사진이 담긴 액자가 있는 책상으로 다가갔다. 둘은 마치 하늘을 날고 있는 듯 두 팔을 넓게 벌리고 있었다.

“파리하는 지휘관 아마리가 돌아올 거라 믿었겠지. 하지만 그녀는 이제 없었어. 내가 망설이는 순간 난 변해버렸거든.”

“자책하지 마.” 잭이 부드럽게 말했다. “네가 어떻게 알았겠어?”

“선심 쓰는 척하지 마, 잭.” 아나가 딱 잘라 말했다. “당연히 내 잘못이었어. 남은 여생동안 괴로워할 필요까진 없겠지만 그정도는 받아들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바뀌는 건 없었을 거야. 우리 모두 네가 돌아오길 바랐어. 결국 네가 없이는 할 수 없더라고.” 잭이 아나의 어깨에 살며시 손을 올리며 말했다. “오버워치에는 네가 필요했어. 지금은 내게 필요하고.”

아나는 잭의 얼굴에서 절실함을 느꼈다. “복수하는 걸로는 그 무엇도 이루지 못해. 자신을 죽음으로 이끄는 것 말고는.”

“그렇지도 모르지, 하지만 난 계속 싸워야만 해. 모두가 포기했지만 난 못 해.”

잭도 날 땀하고 있군. 아나는 깨달았다. “고집하고는.”

“너도 싸움을 그만둔 건 아니잖아.” 잭이 말했다. “그게 아니라면 왜 하킴의 성에 갔겠어?”

“난 조용히 살려고 했어. 내 딸 곁에서 평화롭게 살 수도 있었겠지. 하지만 여기 살면 살수록 내가 이 도시에서 일어난 일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았어. 우리는 아누비스 프로젝트를 무산시켰고, 이집트는 아직까지 그 피해에서 복구되지 못했어.” 아나는 몸을 일으켜 잭에게서 몸을 돌렸다. “사람들은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 하킴 같은 기생충에게 피를 빨리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안 이상 어떻게 이 사람들을 그냥 두겠어?”

“너도 정의를 위해 싸우는군. 나처럼.” 잭이 말했다.

아나가 눈살을 찌푸렸다. “복수는 정의가 아니야.”

잭은 동의하지 않았다. “우린 결국 같은 걸 쫓고 있어. 왜 하킴이 가브리엘을 만났을 거라 생각해? 놈이 탈론과 일하기 때문이야. 이 도시는 서서히 썩어갈 거야. 그리고 늘 그렇듯 결국엔 세상을 망쳐버리겠지.”

“하킴은 카이로의 숨통을 죄고 있는 범죄 조직을 운영하고 있어. 경찰과 정부는 놈을 못 본 체하거나 뇌물을 받아먹고 있지. 식료품은 정말로 먹을 게 필요한 자들에게 배분되지 않고 있어. 의료 조치를 받는 것도 거의 불가능해.” 아나가 말했다. “내 눈을 똑바로 보고 아무 것도 안 하고 떠날 수 있다고 말해봐.”

“우리가 놈들을 무너뜨리지 않는 한 카이로와 세상은 계속해서 고통받을 거야! 더 큰 그림을 봐야지.” 잭이 강하게 말했다.

“지금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 알고 있긴 한 거야? 옛날이었다면 고민도 하지 않았을 일이잖아.” 아나가 실망했다는 듯 말했다. “일하는 방식도 중요해.”



“세상은 변했다.” 잭이 단호하게 말했다. “함께 가지 않겠다면 나 혼자 가겠어. 이미 시간을 너무 많이 날렸어.”

“난 안 가.” 아나가 말했다.

긴 시간 동안, 잭은 침묵 속에서 아나를 응시했다. “저격수는 가장 위험한 적부터 쓰러뜨린다. 그게 네 역할이었어.” 잭은 다 헤진 자신의 코트를 집어올렸다. “네가 보잘것없는 범죄자에게 시간을 쏟겠다면 그렇게 해. 난 전쟁을 치르러 갈 테니까.”

그리고는 버럭 나가버렸다.



잭이 떠난 뒤, 아나는 컴퓨터 앞에 앉았다. 잭이 이미 사용한 듯, 화면은 리퍼의 이동 경로와 출현에 대한 기사들로 가득 차 있었다. 아나는 누가 잭에게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을지 궁금했으나, 지금 풀 문제는 아니었다. 그녀는 기사들을 읽어나가며 가면 아래에 있던 망가진 얼굴을 떠올렸다.

가브리엘... 당신 왜 이렇게 된 거야?

기사 중 하나는 리퍼의 공격에 당한 사상자가 잭과 비슷한 상처를 입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 망할 과학자. 아나는 역겨워하며 누군가를 떠올렸다.

다른 정보는 리퍼에 대해 조금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했지만, 그저 잭의 머리 속에 한 가지 의견을 더할 뿐이었다. 그는 부패한 동맹처럼 수상한 중개인들을 통해 서로 거미줄처럼 엮여 있는

기업들, 정부 관료, 금융 기관 사이에 거미줄처럼 엮인 정보들을 추적하고 있었다. 잭의 특기와는 거리가 먼 문제였다. 잭은 흑백 논리, 확실한 사실과 명확하고 분명하게 판단을 내리는 쪽을 선호했다.

이렇게 지저분한 영역은 늘 가브리엘의 몫이었다.

예전만큼은 아니겠지만.

아나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검토했다. 가슴 속으로는 머무르고 싶었다. 이집트는 무너지고 있었다. 몇 년만 지나면 혼란 속에 빠질 것이며, 하킴 같은 범죄자나 모리배들에게 갈기갈기 찢기겠지. 현상금 사냥꾼 슈라이크의 이름 아래, 그녀는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문제를 바로잡아가고 있었다. 만약 그녀가 떠난다면 지금까지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여기엔 다른 사람들도 있어. 파리하처럼. 그들이 포기하지 않은 이상, 꼭 너야야 할 필요는 없어.

또 그놈의 자존심.

아나는 다시 무법자 솔저: 76에 대한 기사를 읽어보았다. 한 내용이 그녀의 이목을 끌었다. 루메리코의 최신 핵융합 발전소 습격 사건이었다. 시장 한가운데서 총격전이 있었고, 몇몇 심각한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재산 피해가 있었다. 모두 그를 탓하고 있었다. 하지만 목격자였던 도라도 현지의 한 여자아이가



여신 바스테트...
바로 지키는 자의 얼굴이었다.



증언한 내용도 있었다. 모두가 그를 두려워해야 할 인물로 여기고 있었으나, 그녀만큼은 그를 영웅이라 불렀다.

꼭 너여야 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가끔 사람들에게겐 믿을 존재가 필요해.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은 아나는 네크로폴리스에 처음 도착했을 때 발견한 보물들을 임시로 두었던 선반으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고대 가면의 고양이 얼굴을 바라보았다. 여신 바스테트...

바로 지키는 자의 얼굴이었다.



책은 잠든 도시를 거닐었다. 차가운 밤 공기는 낮의 뜨거운 열기로부터 기분 좋은 휴식처럼 느껴졌다. 늦은 시각이었기에 그가 도심을 거닐고 있음에도 길목은 고요했다. 음식을 팔고 있던 가판대, 고철 더미에서 수집한 옴닉 부품, 각종 옷감과 직물 가게들은 오래 전에 판매를 종료한 상태였다. 통행금지령이 내려진 건 아니었으나, 도시의 주민들은 태양이 내린 이후에는 안전을 위해 집에 있길 권유받곤 했다. 리퍼와 대면한 이후, 어둠은 그 미지의 인물을 숨기고 있는 그림자 웅덩이 같았다.

책이 정보를 수집하고, 갖고 있는 단서를 추적하며 사냥에 나선 지 시간이 좀 지난 후였다. 다행히 누구에게도 발각되지 않았으나, 상황은 그대로였다. 탈론과 무리들이 책이 오고 있다는 걸 눈치 못 챘을 리가 없었다. 책은 카이로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제대로 폭 자고 일어난 상태였다. 얼마만인지 기억도 잘 나지 않았다.

아나가 내게 수면제를 먹이다니, 믿을 수 없군. 책은 생각했다.

불안했다. 같은 장소에 너무 오래 머무는 일은 위험하기에, 특히 지금은 게이브가 자신을 찾고 있을 것이기에, 책은 움직여야 했다.



마침내 책이 돌아왔을 때 어느덧 밤은 아침을 향해 가고 있었고, 만월이 하늘에 낮게 깔려 있었다. 책이 들어왔을 때 아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두고 간 물건 가지러 온 거야?” 아나가 쳐다보지도 않고 물었다.

책은 아나 쪽으로 다가갔다. “하킴 사냥을 돕겠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나면 함께 리퍼를 쫓는 거야.”

“이 도시부터 안전해져야 해.” 아나가 책의 말을 정정했다. “이곳의 일이 다 마무리되어야 당신과 가겠어. 하킴뿐만 아니라, 놈의 추종자들까지 전부 처리하고, 사람들이 앞으로 안전할 거란 확신이 있어야 해.”

책은 이를 꼭 깨물고 제안을 숙고해 보았다. “그럼 놈의 저택으로 가서 놈들과 부하들을 한꺼번에 소탕하자. 놈들이 대비하기 전에 한 방에 끝내는 거야.”

아나는 고개를 저었다. “성급하게 해선 안 돼. 지난 번에 어떻게 됐는지 기억나지?”

“게이브만 안 나타났어도 문제없었을 거야.” 책이 말했다.

아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책은 한숨을 쉬었다. “그럼 계획이 뭐야?”

“바닥부터 시작하는 거야. 하킴 주위에 그물을 놓고 자원줄을 끊어버린 다음 놈이 제 발로 기어 나오게 하는 거지. 하킴과 놈을 보호하는 놈들을 밖으로 노출시켜야 해. 알겠어?”

책은 마침내 동의하며 한숨을 쉬었다. “게이브에게 강습 사령관을 잘못 뽑은 것 같다고 말한 적 있었지.”

“그래, 근데 나 말고 게이브를 말한 줄 알았어.” 아나가 답했다.

“라인하르트를 말한 거일 수도 있어.” 책이 능글맞게 웃었다.

“지금은 정신줄 놓지 말자고.”

“꼭 너여야 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가끔 사람들에게겐
믿을 존재가
필요해.”

궁전에서의 전투 이후로 하킴은 도시 안의 은신처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복귀를 미루고 있었다. 잭은 그 은신처 중 몇 개를 밝혀냈는데 그중에서도 그들의 계획을 수행하기에 수월해 보이는 은신처를 알아냈다. 잭은 그 은신처를 내려다볼 수 있는 아파트를 빌렸다. 아나와 잭이 편안함에 신경쓰지 않아서, 방에는 낡아빠진 의자 몇 개와 나무 상자뿐이었다. 그들은 침낭 하나에 돌아가며 잠을 청했다. 이들이 지나자, 아나는 차라도 마셔야겠다며 보온 포트를 가져오자고 주장했다.

일주일 동안 그들은 이미 하킴의 부하 여러 명을 체포하며 조직의 머릿수를 줄여 나갔다. 그러자 누군가가 하킴의 조직을 노린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가 누구였든 간에 사람들은 그가 하킴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릴 거라는 사실에 동의했다. 하지만 첫 한탕 이후로 작전은 지지부진해지고 있었다. 하킴은 더 깊숙이 몸을 숨겼다. 그는 더 조심하고 있었다.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아나에게 지루함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저격수로서 아나는 아직 충분한 참을성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돌아다니거나 잠깐 잠을 청하거나 밖으로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잭은 초조해하고 있었다. 아나는 잭이 지평선을 끝없이 살피며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가 단 한 가지를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다.

가브리엘.

“찾은 거라도 있나?” 잭이 힐끗 올려다보며 물었다. 그는 선생님이 봤다면 걱정했을 정도로 의자에 거의 누울 듯 허리를 기댔다. 손에는 뭔가 들고 있었다.

“하킴의 징후는 없어. 뭘 보고 있는 거야?” 아나가 물었다.

“아, 그냥 옛날을 추억하는 중이야.” 잭이 작은 사진 뭉치를 넘기며 말했다. 꽤 낡아 있었고, 꼬깃꼬깃한 걸로 봐서 오래 지니고 다녔으리라.

가장 위에 있는 사진은 가브리엘을 포함한 세 명의 사진이었다. 모두 젊고 희망에 찬 모습이었다. 단, 가브리엘은 벌써 지도자의 무게감에 스트레스를 받은 징후가 보였다. 리우데자네이루의 전투에서 갓 승리를 거둔 직후의 사진이었다. “여기 해변가 기억나.” 아나가 웃었다. “우리 왜 이렇게 진지해 보이지? 웃겨!”

“그래서 좋은 사진인 거야.” 잭도 웃었다.

아직 웃을 수 있다니 다행이네.

다음 사진을 본 아나는 놀라 사진을 떨어뜨릴 뻔했다. 사진으로 본 적은 없었으나, 그녀는 그를 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 잭은 훨씬 더 젊은 모습이었고 휴가를 위해 군용 차량에서 갓 내린 직후였다. 그녀를 놀라게 한 건 옆의 남자였다. 그는 흑발에 깨주열한 검은 셔츠를 입고 있었고, 잭이 팔을 어깨를 두르고 있었다.

빈센트.





“빈센트... 잊고 지낸 지 몇 년은 된 거 같네.” 아나가 말했다. “아직 미련이 남은 거야?”

잭은 머리를 저었다. “그런 거 아니야.”

“한 번도 찾아본 적 없어? 궁금하긴 했을 거 아니야. 전 세계에 눈들을 갖고 있는데. 네가 부탁했으면 게이브가 블랙워치 요원을 붙여줬을 걸.” 아나가 말했다.

잭은 아나를 노려보았다.

“아, 민감한 주제 같군.”

잭은 웃었다. “결혼했어. 아주 행복해 보이더군. 나도 기뻐.”

아나는 납득하지 못했다. 초기에 잭은 그를 자주 언급하곤 했다. 전쟁이 빨리 끝날 거라는 단꿈에 젖은 채로. 만약 그랬다면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평범한 삶 같은 보상은 있을 수 없지.

“빈센트에게 내가 줄 수 있었던 것보다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어.” 잭은 한숨을 쉬었다. “어떻게 해도 내게는 임무가 최우선이라는 걸 우리 둘 다 알았지. 난 빈센트 같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어... 그게 내 희생이었고.”

“우리에게 관계라는 게 잘 풀리지 않은 것 같아, 안 그래?” 아나가 무의식적으로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던 손가락에 엄지를 가져가며 말했다.

“너랑 게이브는 가족이라도 가져봤지.” 둘은 다시 침묵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평범한
삶 같은 보상은
있을 수 없지.



아나는 창문 밖을 응시하다 익숙한 하킴의 형체가 아파트 건물로 들어가는 걸 보았다. “놈이야.” 아나는 사진을 책에게 다시 넘겼고 책은 조심스럽게 사진을 자켓 안주머니로 밀어 넣었다.

“준비됐어?” 책이 다시 가면과 조준경을 쓴 다음 벽에 기대 났던 펄스 소총을 들어올리며 물었다.

아나는 책의 것보다는 꽤 들기 쉬워보이는 자신의 소총을 집어올리고 어깨에 댔다. 벨트에 섬광탄 몇 개를 끼고 꾸러미에 필요한 마지막 물품을 챙겼다. 바로 황금빛과 검은빛이 섞인 가면이었다.

“그걸 가져갈 건가?” 책이 물었다.

“당신을 보고 깨달은 게 있어, 책. 솔직히 76는 단순한 무법자가 아니야. 온 세상이 그 이름을 알고 적들은 당신이 나타날까 봐 두려워하지. 난 하킴이나 탈론 같은 놈들이 또 나타나서 카이로를 혼란에 빠뜨리는 걸 원치 않아. 그래서 이 새로운 가면을 쓰겠어. 이번엔 사냥꾼이 아닌 지키는 자로서. 내가 떠난다고 해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지켜줄 존재... 바로 바스테트야.”

“내 가면은 그냥 무서우라고 쓰는 건데.” 책이 웃었다.

“할머니보다는 바스테트가 더 무서우니까.”

“아나, 할머니보다 무서운 건 없어.” 책이 말했다.

“넌 알겠지만.”



일주일 후, 아나와 책은 네크로폴리스에서 짐을 싸고 있었다. 앞으로의 여정에 필요한 것만 빼고 아나의 물건 대다수를 두고 갈 셈이었다. 하킴과 그의 범죄 네트워크는 이미 해체되었다. 벌써 바스테트라는 이름의 수호자가 하킴을 체포하고 그가 저지른 범죄의 진상을 밝혀냈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다. 정부도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건 어떻게 할 거야?” 책이 이집트 유물들이 놓인 탁자를 가리키며 물었다.

“당신 옮기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걸 다 갖고 가라고?” 아나가 말했다. “잘 숨겨진 상태니까, 적절한 보관자를 찾기 전까지 여기 뒹도 될 거 같아.”

“파리하?” 책이 추측했다. “파리하한테 말한 거야?”

“메시지를... 남겼어.” 아나가 말했다.

“정말 이렇게 두고 가도 되겠어? 다시 만날 때까지 오래 걸릴 수도 있어.”

만날 수나 있을까?

아나는 한숨을 쉬었다. “첫 번째 편지에도 답장이 없었어.”

책은 움찔하며 놀랐다. “머지않아 이해해 줄 거야. 파리하는 널 사랑하니까. 샘한텐 아무 말도 안 했어?”

“아마도, 언젠가는 말하겠지.” 아나가 말했다. “이 소식 없이도 벌써 그 사람 인생을 지저분하게 만들었는 걸. 우린 다 작별 인사엔 소질이 없잖아.”

“그래도 라인하르트보단 나야. 그 친구, 인생을 무슨 작별 인사 안 하려고 사는 것 같단니까.”

“어떻게 지낸대?” 아나가 물었다.

“애기가 길어.” 책이 말했다. “하지만 들려줄 시간은 충분하겠지.”

아나는 끄덕였다. “떠나기 전에 확실하게 해두고 싶은 게 있어, 책.” 아나가 말했다. “내가 널 따라가는 건 네 생각에 동의해서가 아니야. 탈론, 오버워치, 가브리엘... 난 이미 그것들을 놓아버렸어. 아팠거든.” 그녀가 말을 잠깐 끊고는 말했다. “내가 처음 네크로폴리스에 왔을 때, 내가 발견했던 유물 대부분은 망가져 있었어. 내가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했지만 그대로 남겨둘 수밖에 없었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사령관님.”

“그렇게 부르지 마.” 책이 투덜거렸다. “그리고 서두르자. 만나야 할 옛 친구들이 많아.”



그들은 입구를 막아두고 네크로폴리스를 떠났다. 그들이 떠난 후 오랫동안 고대 문명의 유물들은 먼지 쌓인 방의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여신의 얼굴을 한 황금빛 가면이 놓여 있었다. 카이로 주민들의 심장에 남은 것처럼, 그리고 그들을 해칠 수 있는 자들에게 남은 공포처럼, 가면과 이름 하나가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BLIZZARD[®]
ENTERTAINMENT